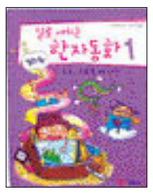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절로 깨치는 한자동화(전2권)=톡톡튀는 상상력을 동원해 어려운 한자를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동화로 구성했다. 재미있는 동화를 따라 읽다보면 저절로 7, 8급 한자 150자를 익힐 수 있다. 〈예림당·각 8천원〉



▲최강국 문법전사=어린이들에게 우리말 문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우리말 문법을 재미있고 친숙하게 익힐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엮었다. 모험을 떠난 아이들이 문법적 의미를 이해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아기자기한 그림과 곁들여져 흥미롭다. 〈아이존·8천800원〉

▲일론의 땅(전3권)=저자인 패트릭 카먼이 자신의 딸들에게 직접 들려주기 위해 쓴 판타지 소설. 마법의 세계인 일론의 땅에서 벌어지는 신비하고 독특한 모험을 통해 인생과 용기, 사랑과 성장의 의미를 일깨운다. 〈현문미디어·각 8천800원〉

▲레이첼 카슨=어린이들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위대한 도전 '시리즈의 다섯번째 책이다. 환경파괴가 가져온 재앙, 화학살충제의 유해성을 철저한 연구를 통해 폭로한 용기있는 과학자 레이첼 카슨의 삶이 감동을 준다. 〈뜨인돌 어린이·8천500원〉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를 소재로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 쓴 동화. 마음씨 착한 거미와 음식을 좋아하는 강아지, 바느질을 즐겨하는 고양이 등 각기 개성이 다른 동물이 파티에 참석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다. 〈시공주니어·8천원〉

세번째 시집 '가재미' 펴낸 문태준 시인

"아이도 아내도 빌려온 것 '그맘때'엔 돌려 줘야지요"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마리 가재미로 눕는다/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가재미'중에서)

잘 나가는(?) 젊은 시인 문태준(36·불교방송 PD)이 세번째 시집 '가재미'를 냈다.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한 뒤 '수런거리는 뒤란'(2000·창비 펴냄), '맨발'(2004·창비)에 이어 세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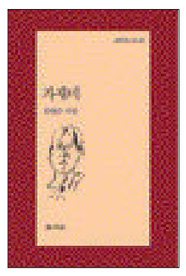
그가 '잘 나간다'는 것은 지난 2004년 동서문학상, 노작문학상, 유심작품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미당문학상에 이어 올해 소월시문학상까지 휩쓸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년(2004·2005년) 연속 '문인들이 뽑은 가장 좋은 시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김소월, 박목월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정시인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시집에는 미당문학상 수상작 '누가 울고간다'와 소월시문학상 수상작 '그맘 때에는' 등 지난 2년 동안 쓴 67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표제작 '가재미'는 지난해 시인과 평론가들로부터 '문예지에 실린 가장 좋은 시'로 선정됐다.

시인은 이제 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의 유년 시절, 고향 마을 어귀의 고갯길, 뜰, 채마밭, 논두렁 등을 다시 등장시킨다. 그에게 있어 고향은 '비움과 평면'의 대상이다.

"마음에 벼린 절벽을 세워두듯 강대나무를 생각하면 가난한 생활이 비로소 견디어진다"('강대나무를 노래함' 중에서)는 시인은 "작은 채마밭을 가꾸는 행복이 생겼다"('벌레시사(詩社)' 중에서)며 즐거워한다.

시인은 자신의 시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바깥에서 가까스로 얻어온 것들, 즉 빌려온 것들이어서 돌려줘야 할 것들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마치 불교에 귀의한 수도자와 같은 마음가짐이다. "그맘때가 올 것이다, 잠자리가 하늘에서 사라지듯/그맘때에는 나도 이곳서 사르르 풀려날 것이니"('그맘때에는' 중에서).



평론가 이광호씨는 "(문시인은) 90년대에 와서 그 현대성을 다시 획득한 서정시의 문법을 통해 '극빈의 미학'으로 재문맥화했다."며 "문태준에 이르러 한국 서정시는 또 한번의 미적 진화의 동력을 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잘그랑거리다, 머츰하다, 무러워요, 비슥이, 슴슴해졌다, 뜨막하게….'

문태준이 빚어낸 시어를 읽노라면 마치 숲속을 걷는 기분이 느껴진다. 시인의 산책은 매화나무 꽃에서 나는 '갓난 아가 살갗 냄새'를 맡을 정도로 꼼꼼하고, 여유롭다. 문득 시인의 안내를 받아 그 길을 걷고 싶어진다.

〈문학과 지성사·6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올찬 시어로 빚은 '극빈의 미학'

한국 서정시학 재문맥화

경쾌한 시각으로 쓴 신화속 '남녀 양성성'

꽃미남과 … 이명옥 지음

21세기에는 왜 여자같은 남자(꽃미남)와 남자같은 여자(여전사)에 열광하는 걸까?

늘 미술을 소재로 톡톡튀는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장이 '꽃미남과 여전사 1, 2'를 통해 그에 대한 궁금증을 특유의 경쾌한 시각으로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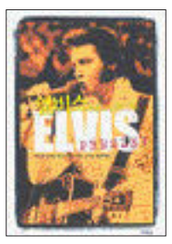
그에 따르면 이미 고대시대부터 아름다운 남자 '메트로 섹슈얼'과 씩씩한 여자 '콘트라 섹슈얼'에 대한 선망과 찬사를 그린 미술작품들이 있었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자웅동체에서 분리된 후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성애로, 나아가서 이성을 닮고 싶어하는 양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발전했다는 신화나 종교의 이야기를 그림과 조각에 나타난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자웅동체상이나 인도의 자웅동체신 하리하라의 모습,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우아함을 갖추고 있는 그리스와 로마의 남성 누드 조각상 등 명작과 도판 200여컷이 수록돼 있다.

〈노마드북스·각권 1만2천500원〉 /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로큰롤 제왕' 엘비스의 모든것 파헤쳐

엘비스… 브라운·브로스키 지음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소식을 들은 카터 당시 미(美) 대통령은 "엘비스의 죽음은 미국의 한 부분을 빼앗아 갔다"며 슬퍼했다. 그만큼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한 아이콘으로 음악과 TV, 영화를 통해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뽐냈던 '제왕'이었다.

노련한 연예기자인 피터 해리 브라운과 팻 H.브로스키는 저서 '엘비스, 끝나지 않은 전설' 에서 화려한 '신화'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엘비스를 샅샅히 파헤친다. 위대한 엘비스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신화 엘비스를 벗겨내고 인간 엘비스를 세우려고" 했다.

열정적인 무대매너와 '허리돌리기' 춤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엘비스 프레슬리. 그의 화려한 삶은 약물중독과 일탈로 마감됐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 자체가 로큰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단 한 번의 결혼을 마감한 후 이렇게 말했다.

"로큰롤이야. 로큰롤은 아내를 허락하지 않지." 〈이마고·2만5천원〉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바쁜 사람들에게 한가로운 책이다 싶어 밀쳐 놓았다가 우연히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을 다시 잡게 되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읽으면 좋을 듯 싶기도 하지만 사실 이 책은 어른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왜냐면 원제목 '작은 나무의 교육(The Education of Little Tree)'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어린이 교육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어른들이 겪어 온 과정이지만 이제 까맣게 잊고 있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다시 일깨워주면서 직설적으로 교훈적이지 않고 오랫동안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인디언 핏줄을 이어받은 '작은 나무'는 부모를 모두 잃고 산속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산사람으로 자란다.

할아버지는 다섯 살짜리 조그만 손자인 작은 나무에게는 다소 벅찬 일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믿어주고 사랑으로 존중해 준다. 이런 때마다 작은 나무는 책임감도 키워 가는데, 읽는 사람에게도 부담없이 자연스러워 보여 좋다.

할머니는 넉넉하다. 백인문화에 냉소적이고 거북해 하는 할아버지와는 달리 할머니는 다른 문화에 대해 좋아하진 않더라도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이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어린 작은 나무는 다른 것

이해·사랑없는 교육은 피폐

에 대한 배타성을 키우기 보다는 이해를 하는 균형감을 갖는다.

인디언들은 삶이 자연과 동화되어 있어 모든 일을 편하게 가르치고 있다. 사냥을 할 때도 자연의 이치를 먼저 생각하고 죽음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당연한 과정으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흥분하거나 슬픔이 아닌 잔잔한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만한 백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강제이주시킨 '눈물의 여로'를 묘사할 때도 비참한 모습으로만 그리지 않고 자존심을 지킨 그들 조상의 모습을 함께 그려내어 필요이상의 반감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을 나름대로 판단능력을 갖춘 존재로서 인정해 주고 있다. 작은 나무가 자기만의 비밀장소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 할머니는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장소를 갖고 있다고 말해주면서 공감해 준다.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에게는 바람막이 큰 나무와 같았지만 삭막한 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손자에게 "자 여기에서 나가자"라고 하지 않는다. 작은 나무가 결정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준다. 저자는 발전된 사회의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복지도 이해와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영혼을 피폐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결정은 손자가 하도록 한다.

우리사회의 어린이들도 작은 나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조그만 아이일 때는 오히려 의젓하고 어른스럽던 아이들이 성숙해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본다. 이 책의 저자라면 어른나무의 그늘이 너무 오랫동안 짙게 드리워져 있어 작은 나무들이 크지 못한 것이라고 탓할 것 같다.

포리스트 카터(Forest Carter)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다. 끊임없는 발전과 경쟁에 지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이번 휴가에는 이 책 한번 읽어 보면 어떨까.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만 기억은 오래 남을 책이다.

송 상 락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